

# ‘설계’(design)논증은 유효한가?

최태연\*

## 논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의 ‘지적설계운동’의 활약에 힘입어 새롭게 부각된 ‘설계논증’의 유효성을 역사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려는 의도에 의해 쓰여졌다. 설계논증은 전통적으로 ‘목적론적 논증’으로 불려왔으며 그 역사는 멀리 플라톤에까지 올라간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성경을 통해 설계논증의 근거를 찾아보고 나서 서양의 역사 속에서 설계논증을 제시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 아퀴나스, 뉴턴, 페일리, 스윈번의 핵심적인 주장을 검토한 후, 설계논증에 대해 가장 자세한 반론을 제시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반론을 정리했다. 설계논증에 대한 흄의 반론 이후에도 설계논증은 논리적 충분성을 가지고 주장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설계논증, 목적론적 논증, 성경, 흄, 지적설계

---

\* 천안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성경의 설계 개념
- III. 서양의 설계논증
- IV. 설계논증에 대한 흠의 반론
- V. 흠의 비판 이후의 설계논증의 유효성
- VI.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설계(design)라는 개념은 약 2500년 동안의 서양철학사와 2000년 동안의 기독교신학사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 논증'(the Teleological Argument) 또는 '설계논증'(the Argument from Design)의 중심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설계논증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이미 특정한 목적에 의해 의도되어 질서 있게 설계되었다는 주장이다. 우주 전체에 대한 이러한 설계가 가능하려면 설계자인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이는 지성적인 초월 존재여야 한다.

설계논증의 사고방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the Bibl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구약의 창세기와 시편, 신약의 로마서에는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된다. 성경과 더불어 서양사상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는 이미 플라톤(Platon)에게서 기초적인 설계논증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 논증은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해 계승된다. 이어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Stoicism)도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성경의 유신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한 중세 최고의 신학자 아퀴나스(Aquinas)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설계논증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등장한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설계논증은 과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방어되었다. 17

세기의 과학자 뉴턴(Newton)이 자연의 설계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면 19세기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Paley)는 길에서 발견된 시계의 예를 통해 설계논증을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19세기 이후 모든 설계논증에 대한 찬반양론은 페일리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설계논증은 현대의 기독교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리차드 스윈번(Swinburne)은 규칙성(regularity)의 원리를 설계 논증에 새롭게 도입했다.

그러나 근대철학에서 설계개념과 설계논증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만은 아니다. 설계논증을 가장 예리하고 자세하게 비판한 철학자는 18세기의 영국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흄(Hume)이었다. 흄은 설계논증을 반론하는 일곱 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의 반론은 20세기에서조차 설계논증에 대한 반론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먼저 성경에서 출발하여 설계논증에 대한 성경적 사고가 무엇인지 밝힌 후에, 서양철학사와 신학사에 나타난 설계논증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 그 다음으로 검토하려는 내용은 근대 이후 설계논증에 가장 포괄적인 비판을 제시한 흄의 반론이다. 흄의 반론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거쳐서만 설계논증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유효한 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미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글에서 다루는 설계논증이 과학적 사실을 통해 설계의 원리를 발견하려는 오늘날의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와는 방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다루어진 설계논증은 지적설계의 기본논리를 제공하는 논증이라고 하겠다.

## II. 성경의 설계 개념

성경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선언에서 시작한다.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은 설계논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제공한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이미 창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2-2:3은 세계의 창조가 일정한 질서(order, sequence)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6일이라는 질서에 의해 만들어 졌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하늘)과 물,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두 큰 광명)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 째 날은 포유류(육축과 짐승)와 파충류(기는 것)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었다. 여기서 한 날(יִום; yom)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설계논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말하면 창조세계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 또는 기쁨’에 있다. 이 창조 목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1:31)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1장에는 이 표현이 창조의 한 날마다 언급되어 전부 6번 나온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음’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인간의 창조에서이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1:26-28에서 다른 생물의 창조보다 훨씬 자세하게 서술된다. 그만큼 창조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sup>1)</sup>으로 특

---

1) 종교개혁자 칼빈(Calvin, 1960, I. 15. 3)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정신(mind)과 심정(heart)과 영혼(soul)에 담겨있는 진실한 경건성(true piety), 의로움(righteousness), 순수함(purity), 지성(intelligence)으로 해석했고 여기에 인간의 신체(human body)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Mathews, 1996: 165)

별하게 창조된 목적은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에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6-28)

창세기에 함축된 창조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나머지 성경 전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시편과 로마서에는 창조의 목적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된다. 즉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난다.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라고 노래한다. 비록 타락(the Fall)에 의해 세계와 인간이 변질되었지만, 창조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타락한 인간조차 창조주를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48편과 150편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서 드러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 썬이다.”(시 148:1)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썬이다.”(시 150:1) 타락 이후 자신의 존재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신약성경의 로마서도 창조의 목적을 시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 1:19-20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언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죄니라 (롬 1:19-20)

이 구절의 중요한 의미는 우주의 창조 이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항상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주의 실재는 우주의 관찰자인 인간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능력과 신성을 지향하도록 하는 점에서 목적론적(teleological)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로마서 1장은 신약성경에서 설계논증의 가장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주라는 물리적 세계는 그 설계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롬 1:24)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다.

### III. 서양의 설계논증

#### 1. 플라톤(Platon)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먼저 설계논증, 즉 목적론적 설명을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ca. 427-347 B.C.)이다. 플라톤은 우주의 탄생을 필연과 지성의 결합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온 우주를 제작한 신(神)인 데미우르고스(Demiurgos)가 우주를 가장 좋게 만들려는 필연적인 의지에 의해 불변하는 이데아(지성)를 모방해서 질서 있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그의 대화편 『티마이오스』(Timaios)에서 전개한다.

왜냐하면 신[데미우르고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물이 선하고

조금도 약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가 나머지 다른 상태가 아닌, 부조화와 무질서한 운동 상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휘어잡았을 때, 그는 모든 경우에 질서 있는 상태가 무질서한 상태보다 좋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 . .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가 우주의 형태를 만들 때, 영혼 안에 이성을 만들고 몸체 안에 영혼을 만들어 넣었다. 그 결과 그가 작업에 의해 생겨난 작품은 가장 공정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있을법한 이야기에 따라 우리는 이 우주가 신의 예지에 속하는 영혼과 이성을 지닌 살아있는 창조물로서 참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선언해야 한다 (Plato, 1966: 30a-b).

플라톤의 목적론적 설명방식을 연구한 이경직에 따르면 플라톤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데미우르고스가 하늘에 있는 신들(해, 달, 별들)을 제일 먼저 제작한다. 그에 따르면, 천체들은 시간(chronos)의 이데아인 영원(aion)의 모상(eikon)이다. 그래서 시간들의 도구(Tim. 41e, 42d)인 천체들은 수에 따라 영속한다(Tim. 37d-e). 이 우주 안에 있는 네 가지 부류 가운데 천체가 형상적 질서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는 천체들의 형태를 둥글게 (eukyklon) 만들어 우주 전체를 닮도록 했다. 또한 천체들의 운동에서 이성적 질서를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빛나는 불을 천체들의 재료로 삼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은 천체들의 운동이 가장 강력한 자의 지혜(phronesis) 속에 놓여 있다고 밝힌다(Tim. 40e)(이경직, 2003: 425; 2001: 74)”. 이처럼 플라톤은 우주가 신에 의해 최고의 지성적 질서인 이데아에 따라 설계되었다고 본 점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설계논증을 시도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도 천문학과 생물학에서 목적론적 설명을 중시했다. 그는 우주의 질서와 생물의 질서 사이에서 유비적으로 목적론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천체의 질서가 단순한 우연에 의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생물의 생성원인은 생성물의 자연(physis), 즉 목적인”을 갖는다고 생각했다(이경직, 2003: 431). 그가 플라톤과 다른 점은 신에 의해 제작된 천체의 질서보다 생물의 질서에 훨씬 더 많은 목적인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부분론』(De partibus animalium)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인에는 사물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원인이 있고 운동이 그 시작에 놓여있는 원인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두 원인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그 다음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물을 형성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먼저이다. 즉 사물의 이성적 근거인 로고스(logos)는 항상 제작물과 마찬가지로 자연물의 처음에 놓여있다. . . 그러나 궁극적 목적과 좋음(아름다움)은 제작물보다 자연물에 더욱 충만하게 들어 있다(Aristoteles, 1955: I 639a20).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생물이 이러한 사물의 이성적 근거인 동시에 최종 목적에 의해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유기체적 설계논증의 선구자가 되었다.

## 3. 스토아학파(the Stoic school)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는 모든 인간이 우주적 섭리인 운명(moira)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우주적) 섭리에



의해 설계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운명의 인과적인 연결망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Audi ed, 1999: 880).”그러나 우주적 섭리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되지 않고 그들이 ‘현인’(the sage)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된다.

그것이 정의를 향한 스토아적 길이다. 그러나 정의와 다른 덕들은 단지 현인에게서만 실제로 발견된다. 이들은 신성한 우주적 계획과 전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상화된 완벽한 이성의 사람들이다(Audi ed, 1999: 880).

이러한 스토아주의의 목적론은 인과관계에 의해 연결된 운명에 의해 우주의 모든 사건들의 질서와 목적을 인정하며 윤리적 삶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섭리론적 목적론에 접근한다.

#### 4. 아퀴나스(Aquinas)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퀴나스(1224-1274)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섯 가지 길(five ways) 중 마지막 길을 목적론적 논증에 할당한다. 그는 자연법칙에 따르는 모든 사물에게도 최종 목적을 향해 진행해 가는 일정한 운동질서가 있다고 보고 그 운동을 미리 설계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길은 자연의 통치에 근거한다.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연법칙에 따르는 모든 사물에서조차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질서가 관찰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동은 [자연법칙에 의해] 거의 일정한 귀결에 도달하며 실제로 최선의 결과를 항상 산출해 내기 때문이다. 그 운동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가며 그 목적에 우연히 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한 예로 화살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궁수를 필요로 하듯이, 의식과 지성은

가진 누군가에 의해 방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식 없는 사물은 일정한 목적을 향해 갈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의 모든 사물을 목적을 향하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신’(God)이라고 부른다(Aquinas, 1963: Ia. 2. 3).

이 유명한 인용문의 전반부에서 아퀴나스는 모든 사물이 자연법칙에 의해 그 자체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용문의 후반부에서 바로 이 자연법칙이 바로 어떤 “의식과 지성을 가진”(cognoscente et intelligente) 존재에 의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즉 사람들이 자연법칙(natural laws)의 결과라고 부르는 운동의 결과가 바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바로 우주의 법칙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다.

## 5. 뉴턴(Newton)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사고방식은 중세를 넘어 자연과학과 수학이 가장 엄밀한 학문의 모델이 된 근대에까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18세기의 역학이론과 중력이론을 통해 근대 과학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뉴턴(1642-1727)이다. 뉴턴은 그의 주저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에서는 신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리처드 벤틀리(Richard Bentley)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자신의 우주론 체계가 일종의 설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운동을 고려한 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원인(cause)이 필요했습니다. 이 원인은 태양과 몇 개의 행성 내부의 물질의 양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중력의 힘을 함께 비교하고 이해하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행성들의 거리와 토성, 목성, 지구와 그 위성들의 거리를 아는 데도 필요했

습니다. 또한 태양을 도는 행성들과 또 그 행성들의 주위를 도는 위성들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다양한 천체들을 함께 비교하고 조정하는 일은 맹목적이거나 우연이 아닌, 역학과 기하학으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원인을 요청합니다(Collins, 2003: 304).

이처럼 뉴턴이 원인이라고 불렀던 내용은 전 우주에 일관된 중력의 법칙을 산출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상수였다. 뉴턴은 후기 작품에서 이러한 상수가 항상 존재하는 권능있는 행위자의 지혜와 기술(Collins, 2003: 304)의 결과라고 말한다. 뉴턴은 중력(gravitation)과 같은 자연법칙조차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존과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 이치는 유기체가 호흡규칙이 생명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했다(Kaiser, 1991: 189).

## 6. 페일리(Paley)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설계논증을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공로자는 케임브리지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1743-1805)였다. 그는 1802년에 출판된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을 유명한 길을 가다가 발견한 '시계'(watch)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내 발이 어떤 돌에 부딪혔다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그 돌이 거기에 있게 되었냐고 질문해 보자. 나는 아마도 그 돌이 옛날 옛적부터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이 대답이 무의미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땅위에 있는 시계를 발견했다고 하자. 마찬가지로 그 시계가 어떻게 거기에 놓이게 되었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계가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답은 왜 돌의 경우처럼 시계의 경우에 해당되어서는 안 될까?(Paley, 1838, Davis, 1993: 95에서 재인용)”

페일리의 대답은 시계와 같이 복잡하고 정밀한 부품을 가지고 있는 사물은 시간을 나타낸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돌과 같은 단순한 자연물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그 시계를 만든 시계공(watchmaker)에 의해 주어졌음에 틀림없다. 페일리는 그의 추론을 우주의 범위로 확장한다. 우주도 시계처럼 복잡한 장치이므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으며 지성과 목적을 가진 행위자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만일 설계(contrivance)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모든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나는 생각한다.……그렇다면 설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다. 이 능력은, . . . 그 사물들을 목적을 향하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힘과 함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요구한다.……우리가 설계의 표시를 어디서 보든지, 그 원인이 지성적인 설계자에게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 설계의 표시는 지나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 설계는 설계자를 가진다. 설계자는 인격체여야만 한다. 그 인격체는 바로 신이다(Collins, 2003: 302).

페일리에게 이 우주와 시계는 두 가지 점에서 유비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는 모두 복잡한 구성을 가진 복합체이다. 두 번째로 두 가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주가 그 질서를 통해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시계는 시간을 재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그는 우주와 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인격적인 설계자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 내린다(Brooke, 1991: 192-194).

## 7. 스윈번(Swinburne)

20세기에 들어와 전통적인 신 존재 증명을 새롭게 논의하는 종교철학(Philosophy of Religion)이 주로 영미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이들 종교철학자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스윈번(Richard Swinburne)이다. 그는 설계의 개념을 목적의 의미 이외에 시간적인 규칙성(regularity)으로 해석함으로써 설계 개념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나는 더 강력한 논증으로 보이는 목적론적 논증의 한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주의 시간적 질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잠깐만 고심해본 사람에게는 저항할 수 없이 충격적인 사실이다. 시간적 연속의 규칙성은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법칙들이 거의 모든 사건의 연속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세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이다. 그 운동의 법칙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식과 성공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주목하는 자연의 질서정연함은 이러한 단순하고 형식화된 과학법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주는 본래 혼돈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주는 매우 질서 있게(orderly) 존재한다(Swinburne, 1991: 136).

더 나아가 스윈번은 우주의 시간적 규칙성은 모든 인과율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과 분석에 의존하는 '과학적 설명'(scientific explanation)에 의해 밝혀질 수 없고 자유로운 의식을 가진 인격체에 대한 분석(personal explanation)에 의해 더 잘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우주적 시간의 질서는 누군가의 인격체에 의해 산출되었다고 판단된다(Swinburne, 1991: 136).

그러나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설계논증이 모든 사람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만은 아니다.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설계논증은 자의적이고 합

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논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 중에서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흄(Hume)은 설계논증을 매우 세밀하게 반론했다.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서양역사에서 설계논증의 중요한 예를 들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설계논증을 집요할 정도로 비판하고 반론했던 철학자 한사람을 통해서 설계논증 자체를 시험대에 올려놓고자 한다.

#### IV. 설계논증에 대한 흄(Hume)의 반론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은 그의 책 『자연 종교와 대화(Hume, 1998)』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에서 설계논증을 다음 일곱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흄은 팜필투스라는 젊은이가 유신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미아와 그 입장을 반론하는 클리안테스, 그리고 회의주의에 동조하는 필로 사이의 대화를 관찰하는 형식의 대화록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이제 이 대화를 근거로 흄이 어떻게 클리안테스의 입을 통해 설계논증을 반론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흄은 설계논증이 결과로부터 역으로 특정한 원인을 추론하기 때문에 오류라고 말한다. 즉 결과로 나타난 질서로부터 질서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어떤 결과로부터 어떤 특정한 원인을 찾는 추론은 반드시 논리학에서 말하는 ‘후건공정’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주에서 기계적인 질서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해도, 우주의 질서라는 결과로부터 질서를 만든 설계자가 필연적으로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Davis, 1993: 98). 클리안테스는 우주의 일반법칙의 질서를 보면 신성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데미아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아니오, 아니오. 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반대되는 이러한 독단적인 추측들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어떤 원인

도 그것의 알려진 결과에서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알려질 수 있는가? 어떤 가설도 분명한 현상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증명될 수 있는가?’ 하나의 가설을 또 다른 가설 위에 세우는 것은 완전히 허공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말장난 위에 가설의 실제성을 성립시킬 수 없다(Hume, 1998: 96).

둘째, 흠은 우주의 단일성을 염두에 둔다면 우주의 질서의 배후에 인간과 유사한 인격체인 설계자가 있다는 추론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만든 제작품과 비교하여 인간 제작자와 유사하게 우주에 대한 신적인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유비적 논증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Hume, 1998: 96). 흠은 클리안테스의 입을 빌려서 이 세계의 질서와 조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를 사람이 만든 제작품과 유사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경고한다.

세계를 둘러보아라. 그리고 세계 전체와 모든 부분에 관해 숙고해 보라. 당신은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 . 이런 다양한 기계 모두와 그것들의 가장 미세한 부분들까지 서로가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정확성은 그것에 대해 숙고해 본 모든 사람들을 감탄에 빠뜨렸다(Hume, 1998: 25).

흠에 따르면 이런 세계에 대한 인상이 자연의 창조자와 기계의 제작자인 인간을 유비시키는 사고로 쉽게 이끈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착각에 기인한 오류이다.

따라서 결과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비의 규칙에 의해 원인 역시 닮았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그리고 창조자가 훨씬 큰 능력을 가졌고 집행하는 일의 위대함에 걸맞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자연의 창조자는 어느 정도 인간의 마음과 유사하다고 추론하게 된다. 이 후험적 논증에 의해 그리고 이 논증만으로, 우리는 신성의 존재를 단번에 증명하고 신이 인간 마음과

지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Hume, 1998: 96).

셋째, 흠은 모든 물질적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 원인 역시 또 다른 정신적 원인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흠은 우주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흠에게 우주의 최초 원인을 창조자 또는 설계자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Davis, 1993: 99) 흠은 클리안테스를 통해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에 덧붙여 대상의 영원한 연속을 추적함에 있어 일반원인이나 최초 창조자를 탐구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그 관계는 시간의 생성과 존재의 시작을 함축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인을 가질 수 있는가?(Hume, 1998: 83)

넷째, 흠은 왜 신 또는 신들이 인간과 비슷한 인격체일 수밖에 없냐고 반문한다. 그는 신인동형론적으로 설계자를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반문한다(Davis, 1993: 99). 클리안테스는 자기와의 논쟁을 견디지 못하고 데미아가 떠나 버린 후, 다음과 같이 답답한 어조로 말한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자연신학 전체가 비록 어느 정도 애매할 지라도, 단순하고 적어도 아직 정의되지 않은 명제인 ‘우주의 질서의 원인 또는 원인들은 아마도 인간 지성과 어떤 먼 유비를 갖는다’로 환원된다면. . . 우물함이 대상의 불명료함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다(Hume, 1998: 130-131).

다섯째, 흠은 우주를 생각할 때, 설계논증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로 보지 않고 일종의 ‘유기체’나 ‘식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Davis, 1993: 99). 클리안테스는 필로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실제로 많은 환경에서 동물의 몸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유비는 가장 물질적인 환경의 많은 경우에 또한 약점이 있는 것처럼 내게 보이는가? 즉 어떤 감각기관도 없으며, 생각이나 이성의 자리도 없고 운동이나 행위의 정확한 기관도 없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는 동물보다 식물과 훨씬 더 닮아 보이며, 당신의 추론은 세계의 영혼을 지지하기에는 매우 비결정적이다(Hume, 1998: 62).

여섯째, 흄은 우주 자체를 우연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Davis, 1993: 99). 그는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데미아의 주장에 맞서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연성에 관한 이 설명을 따르면, 왜 물질적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일 수 없을까? 감히 우리가 물질의 모든 성질을 안다고 단언하지는 않겠다. . . 나는 물질적 세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 하나의 논증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논증은 세계의 질료와 세계의 형상의 우연에서 비롯된다. '질료의 어떤 입자는 무화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 변형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무화나 변형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해진다(Hume, 1998: 62).

일곱째, 흄은 우주가 실제로 엄청난 무질서와 부조화를 보여 주기 때문에 질서에 근거한 설계논증이 실패한다고 주장한다(Davis, 1993: 99). 우주가 조화롭다는 필로의 주장을 클리안테스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유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서 악의 혼합과 무한한 속성의 조화가 불가능함을 영원히 알아야만 한다. 하물며 우리는 전자로부터 후자를 증명할 수 없다(Hume, 1998: 100).

## V. 흠의 비판 이후의 설계논증의 유효성

흠의 날카로운 비판 이후에도 설계논증은 살아남아서 서구의 지성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흠보다 약 30년 후에 태어난 페일리의 설계논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논증에 대한 흠의 비판은 상당 부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설계논증에 대한 흠의 반론 이후 설계논증이 필연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21세기 초의 상황에서 설계논증의 유효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먼저 흠의 반론의 논리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 반론에도 불구하고 설계논증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검토해 보자. 필자는 흠의 일곱 가지 반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분은 설계논증이 일종의 유비추리에 불과하다는 반론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설계논증의 기본 개념인 설계, 기계, 필연성, 질서, 조화 따위의 개념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설계논증에 대한 흠의 반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논증이 일종의 ‘유비추리’ (analogical inference)라는 점이다. 유비추리란 A와 B의 관계와 C와 D의 관계의 유사성을 찾는 논증이다. 그러나 유비추리의 한계는 두 관계가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엄밀히 말해서 유비추리는 논리적인(logical) 추리가 아니라, 수사적인(rhetorical) 표현기법이다. 흠의 주장대로 시계와 시계의 제작자의 관계를 우주와 우주의 제작자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페일리 식의 주장은 ‘비슷한 것’을 ‘똑같다’고 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시계의 경우는 실제로, 즉 경험적으로 시계를 만든 시계제작자를 발견할 수 있지만, 우주의 경우는 그 제작자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흠의 주장의 핵심은 우주의 원인(cause)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반드시 초월적인 절대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위에서

정리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흠의 반론은 결국 설계논증이 가지고 있는 유비적 성격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흠의 반론을 통해 설계논증이 유비추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필연적인 합리적 논증은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흠의 반론은 설계논증이 전제하는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데 있다. 다섯 번째 반론에서 흠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되돌아가서 우주가 기계가 아니라, 식물 같은 유기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기체의 경우는 기계와 같이 제작물과 제작자의 관계와 유비하기가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반론에서 흠은 우주의 필연성이나 질서 자체를 의심한다. 현재의 우주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연성은 없으며 우주에서 질서보다는 무질서가 더 많이 발견되므로 우주가 반드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주가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처럼 목적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근대 이후의 많은 사상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유기체적인 생명 현상을 목적론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또한 현존하는 우주가 필연적이나, 우연적이나의 문제는 합리적 추리에 의해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이다. 칸트는 이 문제를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처럼 이성의 '이율배반'(Antinomie)에 속한다고 보았다(Kant, 1956: A488/ B516). 즉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리해도 이 세계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고 우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흠의 반론은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주를 무질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흠의 반론 역시 우주의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반론 역시 필연적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역학이나 복잡성 과학 이후에도 현대과학에서도 우주에 내재하는 법칙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계논증에 대한 흠의 반론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흠의 반론이 타당성은 설계논증이 유비추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

로 합리적인 논증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다. 이로써 흠은 설계논증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할 수 있다. 흠 이후 설계논증을 주장하는 사람은 설계논증이 함의하는 유비추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우주가 아무리 설계된 것처럼 질서있게 관찰되거나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인간 지성과 유사한 고도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우주를 설계하거나 제작했다는 주장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비가 전적으로 무의미하지는 않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유비해서 지성적인 외계인의 존재를 추측하는 것이 비합리적이 아닌 것처럼, 기계의 설계자인 인간과 비교되는 우주의 설계자를 유비하는 것이 전적으로 비합리적이지는 않는다. 유비추리가 모든 경우에 틀리거나 무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우주를 유기체로 보거나 우주의 필연성이나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설계논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흠의 다른 반론은 타당성이 더 낮다. 우주를 유기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설계논증이 가능하며 우주를 필연적인 존재로 보거나 질서와 조화의 상태로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흠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설계논증은 최소한 인간의 제작물과 우주 사이의 유비추리에 의해 가능하며 우주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로부터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 VI. 나오는 말

이 논문은 최근의 '지적설계운동'의 활약에 힘입어 새롭게 부각된 '설계논증'의 유효성을 역사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려는 의도에 의해 쓰여졌다. 그러나 필자는 지적설계론의 설계논증을 직접 분석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서양철학과 신학에서 '목적론적 논증'으로 불려온 설계논증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근대 철학자 데이비드 흠 이후의 설계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시도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성경을 통해 설계논증의 근거를 찾아보고 나서

서양의 역사 속에서 설계논증을 제시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과, 아퀴나스, 뉴턴, 페일리, 스윈번의 핵심적인 주장을 검토한 후, 설계논증에 대해 자세한 반론을 제시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반론을 정리했다. 필자의 논의 결과는 흄의 반론 이후에도 설계논증이 유비추리의 한계 속에서 유효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데이비드 흄 (1998), 『자연 종교와의 대화』 탁석산 역, 울산: UUP.
- 이경직 (2003), “목적론적 설명과 물질적 설명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생물철학을 중심으로 -,” 『성곡논총』 34.
- Aquinas, T. (1963), *Summa Theologiae*, latin text & english translate. N. Y.: McGraw-Hill.
- Aristoteles (1955), *De partibus animalium*, trans. by A. L. Peck,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Audi, R. (ed.) (1999), *The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2th. ed. Cambridge: CUP.
- Brook, J. B. (1991), *Science and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McNei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ollins, C. J. (2003), *Science and Faith: Friends or Foes?*, Wheaton, Ill.: Crossway.
- Davis, B. (1993),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Religion*,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mski, W. and Ruse, M. ed. (2004), *Debating Design. From Darwin to D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me, D. (1998),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ed. by H. Popkin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 Kant, I. (1956),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 Ray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Mathews, K. (199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4:26*, Nashville: Broadman & Holman.

Plato (1966), *Timæus*, trans. by R. G. B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winburne, R (1991), *The Existence of God*, the revise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Is the 'Design' Argument Available?

Tae Yeon Choi<sup>2)</sup>

This article intend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esign argument historically. This argument is known as the teleological argument and found roots in Plato's philosophy. First I will search the biblical grounds of this argument and then present the arguments of historical figures in the western history like Plato, Aristotle, the Stoics, Aquinas, Newton, Paley, Swinburne. The greatest antagonist against this argument is an english philosopher David Hume. He gave seven arguments against the design argument. I examine his arguments and come to a conclusion.

Key Words: Design argument, Teleological argument,  
The Bible, Hume, Intelligent Design

---

<sup>2)</sup>Professor of Chonam University